

지난해 한국의 국부 1경 2000억원

한은, 국민대차대조표 발표... 국민순자산 전년 비 5.70% ↑ · 가구당 평균 순자산 3억6152만원

지난해 한국의 국민순자산이 1경 2000억원대로 잠정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1558조6000억원)의 7.9배 수준으로 2014년과 동일한 GDP 대비 배율을 유지했다.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국민대차대조표집정'에 따르면 국민순자산은 2015년 말 기준 1경 2359조 5000억원으로, 전년(1경 1692조 4000억원)보다 5.70%(667조 1000억원) 증가했다.

국민대차대조표는 한 나라 전체나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한 실물자산 가액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등을 기록한 통계다. 국민순자산은 고정자산(건설설비·지식재산생산물 등)과 토지자산 등의 비금융자산(실물자산) 그리고 순금융자산(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차액) 등으로 구성된다.

◇가계·비영리단체 순자산, 전체의 58.1%... 가구당 평균 3억6152만원

정부와 기업을 뺀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산은 7176조2000억원으로 국민순자산의 58.1%를 차지했다.

가구당(2.55인) 평균 순자산은 3억 6152만원으로 추계됐다. 1인당 1억 4177만원인 셈이다.

일반정부 27.4%(3381조7000억원), 비금융법인기업 11.9%(1466조7000억원), 금융법인기업이 2.7%(334조9000억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이 54.2% ... "개발과지가 상승 덕"

비금융자산의 자산형태를 보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중이 두드러졌다. 전체 비금융자산(1경2126조5000억원) 중 토지자산이 54.2%(6574조7000억원), 건설자산은 34.4%(4166조4000억원)를 차지해 부동산 관련 자산의 비

중이 전체의 88.6%에 달했다.

토지자산의 비금융자산 대비 비중은 2013년 53.2% 2014년 53.6%로 꾸준히 줄어들다가 2015년에 다시 늘었다.

김광섭 통계청 경제통계 국장은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토지자산의 증가세가 급격히 축소됐다"고 최근 혁신도시, 세종시, 제주도 개발 등으로 인해 2014년 이후 다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지자산은 지가 상승이 발생하면서 증가세가 커졌다. 건설자산은 건설투자가 증가했으나 건설 관련 단가가 하락해 소폭 증가에 그쳤다.

실제 2015년 중 비금융자산은 전년에 비해 4.6%(530조4000억원) 늘었는데, 토지자산(68.8%)과 건설자산(18.6%)이 비금융자산 전체 증가의 87.4%를 견인했다.

실비자산 5.7%(694조2000억원), 재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연수실에서 열린 2016년 한국의 문화유산 기념주화 실물공개 행사에서 모델들이 기념주화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기념주화는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과 조선왕릉의 모습을 담았다.

고자산 2.8%(336조4000억원), 지식재

산생산물 2.6%(311조9000억원) 등이 비금융자산의 11.4%를 차지했다.

가구당 순자산도 부동산 자산에 묶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자산 가운데 비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을 기준으로 63.1%를 기록했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비

금융자산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이다. 2011년(66.7%)과 2014년(64.1%)에 비하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4년 기준 미국(29.8%)·캐나다(45.1%)와 2013년 기준 일본(38.4%) 등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다.

2015년 주택의 시가총액은 3519조 5000억원으로 GDP 대비 2.2배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 1.5배에서 2009년 2.3배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했으나 2014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폭 상승세로 전환했다.

◇생산지식 가격변동률 마이너스로

전환,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도 둔화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산 가격변동률은 2014년 0.7% 상승했다가 2015년 -0.1%로 하락했다.

건설자산, 실비자산, 지식재산 생산물 등을 포괄하는 고정자산의 GDP배율은 2011~2014년 3.4배에서 2015년 3.3배로 감소했다.

전승철 한은 통계국장은 "이 같은 한국의 GDP 대비 고정자산 배율은 주요 선진국의 평균인 3.2배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량을 나타내는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계속 둔화했다.

자본서비스물량 증가율은 2001년 4.6%에서 2012년에 4.0%로 떨어진 뒤 2013년·2014년 3.7%에 그쳤다가 2015년 3.6%로 집계됐다. /인진수 기자

삼성·LG, 하반기 스마트폰 신제품 경쟁 예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올 하반기 스마트폰 및 관련기기 시장에서 신제품을 무기로 또 한번의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선보일 하반기 주인공은 단연 갤럭시노트7이다. 오는 8월께 발표가 예상된다.

가장 주목받는 이슈는 신제품의 이름이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를 내놓았지만 올해 이어질 넘버는 6가 아니라 '갤럭시노트7'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호응을 얻은

'갤럭시 S7'의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LG전자도 지난해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V10의 후속작을 하반기에 발표한다.

V10은 전작 스마트폰으로 출시됐으며 스마트폰 화면에 또 다른 화면인 '세컨드 스크린'을 탑재하고 일반 카메라와 별도로 광각 카메라를 채용해 셀카용 없이 7~8명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의 니즈를 공략한 제품이다.

삼성전자와 LG의 하반기 스마트 기기 신제품 경쟁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글로벌 시장'의 선점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신제품은 출시 행사부터 뉴욕에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9월 글로벌 출시될 애플과의 경쟁에서 시장선점을 하겠다는 전략이다.

V10 후속작도 지난해 효과를 본 글로벌 마케팅 행보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세계적인 스마트폰 트렌드인 '듀얼

삼성 '갤럭시노트7' LG 프리미엄 V10 후속작

카메라'를 탑재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린 것도 글로벌 시장 공략의 공통점이다.

하반기 신제품에서 생체인식 등의 첨단기술력을 어디까지 선보일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삼성전자 신제품에 홈택스 인식 기능이 포함될 거라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LG전자는 이번에 '글라스 일체형 지문인식 모듈'을 적용할 전망이 우세하다. /인진수 기자

LG유플러스 홈 사물인터넷 확산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가입가구 30만 돌파

전국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LG유플러스 홈 사물인터넷(IoT)이 속속 스며들고 있다.

14일 LG유플러스는 지난해(주요 강개발과 IoT오피스텔 구축 사업 협력)를 맺은 데 이어 이주산업건설(주)와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등과 스마트 홈 확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삼성전자와 함께 IoT 생활 가전사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다양한 시도 속에 LG유플러스 홈 IoT는 가입 가구 30만을 돌파하며 홈IoT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집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가전 작동에 얽 하나로 제어하는 세상을 열고 있는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오피스텔에 공급하는 서비스는 홈IoT허브(음성제어), 에너지미터(전기 사용량 실시간 확인·누진단계 변경 일립), 플러그원격 온오프·대기전력 및

감지센서(창문 문개폐 상태 확인), 가스락(가스밸브 원격 확인 잠금·타이머 설정), 온도조절기(원격 실내온도 모니터링 및 제어) 등이다.

IoT 서비스들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청소하자'라고 말하면 환풍기, 공기청정기, 로봇청소기, 커튼이 동시에 작동한다. 거주자의 빅데이터가 쌓이면 이용자 행동패턴 분석을 통해 출·퇴근 주말, 여행 시 모드를 추천받을 수 있다.

'외출 모드'를 설정해두면 외출 중 창문 열림 감지 시 거실 조명과 TV가 켜지고 사용자에게 알림이 발송되는 식이다. 이용자는 홈 CCTV로 위험을 확인한 후 보안업체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국내 주거환경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벤처업계,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확대 요구

벤처업계가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적격 대상 확대,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충남이 제1차관 주제로 14일 경기 관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주요 벤처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자생력 있는 민간 주도 생태계 완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시장지향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우선 "우수 인재들이 벤처생태계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시점이 생태계가 완성되는 시점"이라며 "적격 스톡

옵션 대상 확대(현행 1억원~6억원 상한), 5000만원(주식매입가격 기준) 이하 스톡옵션 비과세 등 과감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까지 실질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울러 "지난 1월 시행한 클라우드 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폐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보완필요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밖에 업계는 기업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시장거래 인센티브 부여와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방향, 핀테크 규제 개선 등에 대해서도 중요성 강조와 함께 정부정책 점검을 요청했다.

인진수 기자

넥슨 FPS 게임 '서든어택2' 7월 6일 정식 서비스

넥슨이 서비스하고 넥슨지티가 개발한 신작 온라인 FPS(인칭총격) 게임 '서든어택2'가 다음달 6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게임은 '서든어택'으로 유명한 넥슨지티가 4년 동안 공들여 만든 신작이다.

서든어택2는 전투상황에 따라 캐릭

터 표정이 바뀌는 세밀한 움직임, 전장의 느낌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배경 등으로 정교함을 높였다. 호쾌한 타격감과 역동적인 전투, 개성 있는 게임 모드는 전작의 명성을 뛰어 넘는다.

넥슨은 정식 출시에 앞서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사전등록 이벤트와 사전

광고를 벌인다. /인진수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 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략산업과
063-430-2951